

티스테이션 전경



타이어 안전 점검 모습

한국타이어 여름철 안전 운전 대비 타이어 관리법 제안

여름철에는 폭우와 지열 등으로 노면 상태의 변화를 빠르게 예측할 수 없어 자동차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여름철 안전하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한 타이어 안전 관리법을 제안한다.

타이어 마모, 안전 운전의 마지노선 1.6mm? 3mm!

동일한 타이어 마모 상태로 제동력을 테스트하면 젖은 노면에서 미끄러지는 거리가 일반도로보다 1.5배 이상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빗길 미끄러짐 현상은 타이어의 배수 능력과 관련이 깊다. 타이어는 트레드(Tread: 노면과 닿는 타이어 표면)라는 고무층 사이 홈을 통해 도로 위에 고인 물을 내보내는데, 마모가 심하면 홈의 깊이가 얕아져 타이어의 배수 능력이 떨어지고 타이어와 도로 표면 사이에 수막현상이 생긴다.

젖은 노면에서 시속 100km 이상 달리다 급제동하면 홈의 깊이가 7mm인 새 타이어와 1.6mm로 심하게 마모된 타이어가 제동력에서 약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시속 80km 속도의 코너링 실험에서 마모가 거의 없는 타이어는 2~3m가량 미끄러지는 데 반해, 마모가 심

하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등 위험성이 크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마모 한계선인 1.6mm에 도달할 때 타이어 교체를 고려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안전을 위해 홈 깊이가 3mm 정도인 상태에서 여유를 두고 타이어 교체하기를 제안한다.

여름철에 공기압을 낮춰야 한다고? No!

‘적정 공기압’ 상시 유지

여름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름에는 한낮의 높은 기온과 아스팔트와의 마찰열로 타이어 내부가 팽창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공기압을 5~10% 낮춰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여름철에는 타이어의 부피 증가보다 오히려 공기압 부족에 따라 나타나는 내부 온도 변화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공기압이 낮은 타이어는 회전 저항이 커지고, 접지면이 넓어져 열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고속 주행할 때에는 타이어 표면이 물결을 치는 듯한 현상인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가 생겨 파열 위험성이 커진다. 타이어는 자연적으로 공기가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기압을 낮게 유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차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반대로 공기압이 과하면 완충 능력이 떨어져 승차감이 나빠지고 차체 고장을 일으킨다. 즉 타이어의 모든 부위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 타이어 손상이 쉽게 생기고 중앙 부분에 조기 마모 현상도 생긴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 타이어의 트레드 부위 전체가 지면에 고르게 접촉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타이어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연비도 절감할 수 있다.

타이어 중심 자동차 토털 서비스 전문점

티스테이션(Tstation)

티스테이션은 축적된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로 고객에게 기본 좋은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한다. 고객이 전국 어느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차량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늘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



라인 구매와 매장 서비스를 신청 당일에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 차량을 수령하고 작업 후 다시 가져다주는 ‘스마트 픽업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구매 후 1년간 1만6천km 이내 주행 중 타이어 파손이 발생하면 동일 타이어로 보상해 주는 ‘스마트 안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또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미쉐린 타이어, 피렐리 타이어, 맥시스 타이어 등 4개 브랜드의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다. ●

타이어 안전 관리 6계명

- ① 매월 1회 타이어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 ② 마모 한계 1.6mm 이하 타이어는 사용하지 말고, 3mm 정도 상태에서 여유를 두고 타이어 교체를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 ③ 타이어는 기준에 맞는 적정 공기압이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④ 장거리 고속 주행할 경우 타이어 내부의 축적된 열을 식혀주기 위해 2시간 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 ⑤ 상처 난 타이어는 운행 중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판매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상처가 커지거나 변질 위험이 있으면 새 타이어로 교체해야 한다.
- ⑥ 스페어타이어는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압, 상처 유무, 남은 홈 깊이 등을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